

카지미르 말레비치 절대주의 회화를 응용한 니트디자인

김 그림·김 영 주*·이 연 회^{***}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한양여자대학 니트패션디자인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Knitwear Design through Application of Kazimir Malevich's Suprematism Painting

G-Rim Kim · Young-Joo Kim* · Youn-Hee Le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Knit Fashion Design, Hanyang Woman's College*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7. 9. 18. 접수; 2007. 11. 2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ussian abstract artist Kazimir Malevich's works during the period of absolutism and thereupon, suggest some knitwear designs practical, decorative and creativ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dissertations and academic journals to determine the Russian abstract fine art and the significance of Kazimir Malevich's works in the history of arts and thereupon, examined Malevich's works or the champions of absolutism in terms of their geometric formative elements or forms and col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intings may be important motives for the contemporary costume designs, while being a major driving power for development of some original designs depending on artists' personal thoughts and expression techniques. Second, this study is deemed to suggest creative and original techniques and motive applications for fashion designs by introducing the elements of Kazimir Malevich's paintings into costume designs, and provide for an opportunity to suggest new values by combining arts and fashion. Third, the knit jacquard technique, one of the major techniques for the knit design works using Kazimir Malevich's absolutism works, is considered a tubular jacquard featuring the deepest sense of thickness. The intarsia technique is preferred in the recent trend for light fabric because it features clear background patterns and allows for thinner fabric. Lastl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to expand the domain of expression by means of an art marketing or meeting between arts and fashion in our contemporary industries.

Key Words: Kazimir Malevich's works(카지미르 말레비치 작품), Knitwears(니트웨어), Tubular Jacquard(튜블러 자카드), Intarsia(인타시아)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82-2-2220-1195, Fax. +82-2-2297-1190

E-mail : yiyhee@hanyang.ac.kr

I. 서론

현대의 패션 산업은 우리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패션산업의 변화 중 팔목할만한 점은 니트 제품 소비의 증가 추세이다. 2005년 조사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의류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의류시장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니트의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소비자의 패션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레저·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여가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와 이지웨어 붐(easy wear boom)과 함께 편안하고 활동성이 있는 니트웨어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니트 산업은 유럽 선진국의 고부가가치형 디자인 시스템이나 중국의 저가 정책에 밀려 그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국제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니트 패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미래의 패션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고품격 디자인에 의한 고부가가치제품의 디자인개발 및 차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형 니트 디자인을 위하여 예술 작품을 접목시킨 니트웨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패션산업은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개성적인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표현적인 기능까지 수행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예술과 산업의 만남이 가속화되어져 본격적인 문화예술과 마케팅의 만남으로 진화하였고, 기업 활동의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아트 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트 마케팅은 예술작품을 제품디자인이나 광고, 패션에 직접 차용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예술작품을 차용하거나 새로운 아트코드를 창출함으로써 예술을 통해 기업이 의도하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추상미술 작가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절

대주의 시기 작품들의 조형적 특징인 기하학적 형태와 원색적인 색채의 구성을 연구하고 선정된 모티프의 재구성과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흰색(White), 검정(Black), 파랑(Blue), 초록(Green), 빨강(Red), 노랑(Yellow) 컬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니트 소재와 접목시켜 실용성, 장식성, 독창성을 겸비한 예술과 패션이 접목된 새로운 니트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관련분야의 서적,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니트 디자인에 접목한 작품제작으로 구성 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외 문헌과 학술지, 패션 매거진, 신문, 인터넷, 실물 등의 자료를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상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작품에 응용되는 말레비치 작품의 시대적 범위는 절대주의 작품 시기인 1913년부터 1927년까지로 절대주의 시기의 말레비치의 활동과 그의 작품들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작품세계를 살펴본 후 절대주의 시기의 말레비치의 활동과 그의 이론, 말레비치 작품의 예술사적 의의를 연구한다. 또한,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작품속의 기하학적 조형요소인 선과 형태, 색채와 구도에 대해 고찰하고 조형적 이미지의 다양한 작품을 전개한다.

둘째, 본 연구 작품의 적용 기법인 컴퓨터 니트 기법과 관련하여 니트의 종류와 컴퓨터 니트 기법 중에서 작품 편직 기법인 자카드와 인타시아 기법을 살펴본다.

셋째,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작품을 응용하여 기하학적 모티프를 선과 형태, 구도를 바탕으로 니트웨어에 응용할 모티프로 재구성하고, 색채는 말레비치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White, Black, Blue, Green, Red, Yellow 컬러를 반영하여 말레비치 작품의 단순화된 색, 면 구성과 면적비를 니트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말레비치 작품에서 보여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 원색적인 색채의 특징을 응용하여 8점의 여성용 니트웨어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카지미르 말레비치 작품에 관한 고찰

1) 러시아의 추상미술과 카지미르 말레비치

20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이 발표되고, 다양한 예술운동과 문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미술 분야만 해도 신원시주의(Neo-primitivism), 광선주의(Rayonism), 입체미래주의(Cubo-futurism), 절대주의(Supremat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 등 다양한 미술 사조가 유행했으며, ‘예술세계(World of Art)’, ‘푸른 장미(Blue Rose)’, ‘청년 연합(Union of Youth)’ 등 여러 예술단체가 형성되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³⁾. 각종 예술단체들은 자유분방한 문화적 분위기에 힘입어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고, 그 결과물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소위 ‘러시아 아방가르드’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러시아는 일종의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았다.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도 이 시기에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작가 중 한명이다.

카지미르 말레비치는 1878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하여 1935년 5월 15일에 타계하기까지, 추상미술을 개척한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절대주의라는 양식을 전개시킨 기하추상미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추상미술의 또 다른 개척자들인 칸딘스키, 몬드리안의 작업과 비교하여 외부세계와 어떤 연관성도 지니지 않은 채 오로지 직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추상미술에 도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추상으로서의 이행 과정상의 특성이 부각되거나 백색바탕의 화면위에 놓여있는 사각형 모티브의 단순함으로 인해 1960년대에 탄생한 미니멀리즘의 선례로 알려진다⁴⁾.

말레비치는 레핀, 플레노바, 브뤼벨 등의 미술가들과 새로운 미술의 방향을 모색할 그룹을 결성하여 비잔틴 회화의 장식적 양식을 부활시키는 운동을 통해 구태의연한 아카데미 형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1900년에서 1920년에 이르는 시기에 모스크바는 가장 진취적인 예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큐비즘과 미래파의 활발한 소개도 있었고,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했다. 러시아의 젊은 미술가들은 모로소프(Ivan Morosov)와 슈추킨(Sergei Stchukine)에 의해 수집된 마티스와 피카소의 작품들을 젊은 미술가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러시아적 정체성에 몰두하여 서구와는 차별화된 예술을 추구하였다⁵⁾.

1900년대 이후의 러시아의 전위예술운동은 대체로 큐비즘과 미래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 나타난 이념에는 광선주의와 절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를 들 수 있다. 라리오로프(Michael Fedorovich Larionov, 1881-1964)와 그의 아내 곤차로바(Natalia Sergeevna Gontcharova, 1881-1962)는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의 선구적 개념들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최초의 전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⁶⁾, 1913년 모스크바에서 ‘과녁’이라는 전시로 광선주의(Rayonnisme)를 선언하였다. 라리오로프는 프랑스의 큐비즘, 이태리의 미래주의와 매우 유사한 작업방식을 택했는데, 이 작업은 그들이 파리로 떠나기 전인 1914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서구의 입체 미래주의가 만나는 중간지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리오로프와 곤차로바는 논리적 추론에 따라 야수파, 입체파, 그리고 자생했던 러시아의 장식적이고 원시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다. 말레비치가 이들을 만난 것은 1910년 다이아몬드 책에 작품을 전시하면서 처음으로 접촉하였는데, 말레비치가 현대미술운동에 있어서 최초의 체계적인 추상회화 유파였던 절대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만남의 시작이었다. 당시 이 그룹은 라리오로프와 곤차로바에 의한 신 원시주의와 시인들과 화가들이 연계를 이루며 전개했던 미래주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 이전의 말레비치는 1907년 모스크바에 정착하면서 상징주의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양식을 실험하면서 작업을 한다. 그는 당대 러시아의 상징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 보여졌던 삶의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그가 여자를 주제로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넵프들(The Nymphs)’과 ‘아이를 낳는 여자(Woman in Childbirth)’에서 보여 지는 여성의 이미지는

상징주의자들의 여성을 숭배했던 관점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런 상징주의의 영향은 말레비치의 예술에 대한 기본철학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말레비치가 상징주의의 경험을 통해 기본적 예술관을 형성했으며 이후 이것을 기반으로 신비주의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러시아 미술의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관심은 추상미술에 대한 개념도 다르게 발전했는데 구체적 대상을 초월해 있다는 의미의 ‘비대상 미술(non-objective art)’이라는 명칭이 쓰였다. 이에 말레비치는 절대주의를 비대상 미술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발전시켰으며, 이후 말레비치의 작업들은 러시아적 추상개념의 대표적인 예로 보여 지게 된다.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추상회화가 시각세계에서 주어진 것을 단순화하고 정화하면서 창조된 것이라면, 말레비치의 추상회화는 자연의 대상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순수한 감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는 자연의 재현이 예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순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재현에서 벗어난 것이 절대주의라고 말한다. 형태 자체의 순수성에 만족하며 회화에서 색채와 형태, 그 자체가 결론이라고 생각하였고,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절대 순수감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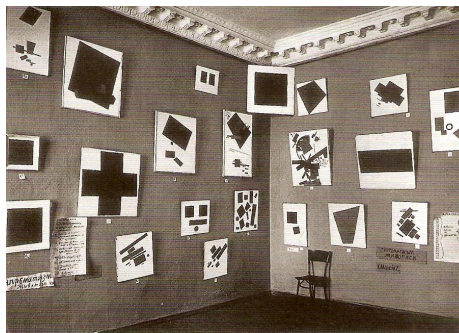
2) 절대주의 시기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활동과 작품세계

카지미르 말레비치는 화가이자 이론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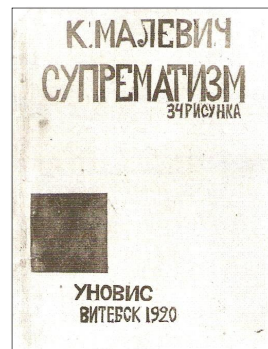
그의 모든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체계를 집필하였으며, 후진 양성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디자인 교육개발에도 힘쓴 교육자였다. 그는 예술 지상주의의 순수를 부르짖었지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우주적 관점의 절대주의 모드를 추구하려했던 미래지향적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작업방식은 자신의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기위해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실험적 성격의 디자인 모형을 구체화시킨 견본을 반드시 제시하였다⁸⁾.

절대주의 시기인 1913년부터 1927년까지 중심으로 말레비치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의 나이 35세가 되던 1913년 'Union of Youth' 운동에 가담했던 말레비치는 '표적(Target)'전에 참여하였고, Matiushin에게 회화에서 의미 있는 유일한 길은 입체.미래주의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해 그와 함께 절대주의의 시원이 된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의 무대 및 의상디자인을 담당하였다. 1914년 그의 최초의 이론적 에세이인 '입체 미래주의에서 절대주의로'를 출판하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러시아 전쟁을 지지하는 선전 포스터를 러시아 민속풍의 그림(lubok)으로 제작하였다. 1915년 이반 푸니(Ivan Puni)와 그의 아내 제니아 보고스로바카바(Xenia Boguslavakava)가 'Tramway V(최초의 미래주의 전시회)'를 마련하였으며, 말레비치도 참가하였다.

그는 자신이 '절대주의'라고 일컫기로 결정한 새로운 추상적인 스타일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미래주의자 전시회인 '0.10' 전<그림1>에서는 '새로운 회화적 리얼리즘'이라고 소개하는



<그림1> 0.10 전시회 (출처: 러시아 구성주의)



<그림2> Book cover (VITEBSK, UNOVIS, 1920)

비-대상적인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그는 절대주의의 스타일을 견고하게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본질을 집약시킨 회화의 집약성, 색깔없는 절대적 미개념의 기하학적 조형을 보여주었다⁹⁾. 말레비치, 이반 푸니, 이반 클리움(Ivan Klium, 제니아 보고스로바카바, 미카엘 멘코바(Mikhail Menkova)는 그들 스스로 절대주의자임을 선언하였으며, 그들의 선언문을 출판하였다. 다음해에 카탈로그로 재편집된 ‘입체주의로부터 절대주의로: 새로운 회화적 사실주의(From Cubism to Suprematism: New Paintly Realism)’를 발간하였다.

1919년에는 SVOMAS(Free State Work Shops)에서 Udaltsova와 함께 미술과 텍스타일 스튜디오의 감독을 맡았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 대상적 창조와 절대주의’란 제목의 Tenth National Exhibition에 ‘White on White’ 작품을 포함해 16개의 절대주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1920년 El Lissitzky등과 함께 Vitebsk school of Art에 UNOVIS(새로운 예술의 확인자)를 만들었고, 절대주의를 집합한 창작품으로 확장시키려고 했으며, 교과내용도 바꾸려는 의도를 품었다. UNOVIS에서 suprematism:34 Drawings가 책으로 출간되었으며, 책표지 디자인을 하기도 했다<그림2>¹⁰⁾.

1921년 회화를 포기한 그는 플래닛(Planits) 제작과 이론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였다. 1922년 ‘절대주의. 비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이론서를 완성하였고, 페테스브르크의 예술 문화 박물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1923년 도자기 공장들과 협력하여 절대주의 양식에 따라 도자기로 된 주전자와 컵을 디자인 하였다. 말레비치와 UNOVIS회원들은 절대주의 원칙에 근거해 새로운 형태와 직물장식을 디자인 하였다. 말레비치는 ‘플래닛(Planits)’라 불리는 스케치에서 절대주의 건축물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924년 GINKKUK(Gosudarstvennyi institut khodzhestvennoi kul'tury-stste of Artistic Culture)에 합류하였으며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검은 사각형’, ‘검은원’, ‘검은 십자가’와 함께 6장의 ‘플래닛(Planits)’ 도면을 전시하였다¹¹⁾. 1925년 절대주의 건축적 생각을 추상적인 3차원 모형의 Architecton(건축적인 형태)이란 작품을 제작하여 러시아에서 구성주의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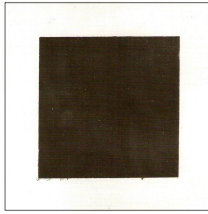
주었다. 1926년 ‘미술에 있어서 부가적 요소 이론 도입’을 완성시켰다. 1927년 말레비치는 부가적 요소의 의미와 예술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연관성에 관한 강의서에서 시각적 도구로서 바우하우스를 방문하였고, 그의 이론 전집을 Die gegendstanlose Welt(비대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¹²⁾.

이와 같이 말레비치는 57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화가로서 전시활동 이외에 예술 행정 및 교육자, 이론의 저술가로 활동하였으며, 무대 및 무대 의상디자인을 시작으로 절대주의 원칙에 근거해 건축, 도자기, 직물장식 등의 생활환경 및 생활 예술 디자이너로도 활동 하였다. 그는 절대주의를 체계화시키고 이론을 실제에 접목시키고자 각종 이론서를 제작하였고, 후진 양성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 접목시키는 디자인작업을 하였다.

3)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작품의 조형적 이미지 분석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작품을 색채와 형태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말레비치는 서유럽에서 추상회화가 조심스럽게 탐구되고 있을 무렵인 1913년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에서 절대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사각형을 보여준다.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를 위한 의상과 무대디자인은 완전 추상의 형태로 절대주의 기원이 되는 다양한 추상의 형태로 된 작품들이 나타나 말레비치가 입체 미래주의에서 절대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두 시기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¹³⁾.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는 무대디자인 작업이 절대주의를 고안하는 데에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작품 시기는 절대주의의 기본요소인 흑백의 대비를 실험하며 검은색 사각형을 연구하였던 초기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다색을 통하여 ‘혁명에 대한 찬미’를 보냈던 중기, 극단적 순수성의 완성을 보여주며 흰색의 정사각형을 보여주었던 후기로 작품의 조형적 형태와 색채, 그리고 구성에 따라 3단계



<그림3> 검은 정사각형
(Black Square, 1913년)
(출처: Kazimir Malevich)



<그림4> 절대주의 요소들 (1915년)
(출처: 러시아 구성주의)

로 구분할 수 있다. ‘불필요한 대상의 무게로부터 예술을 구출하기 위하여 절망상태에서 겨우 발견한 피신처가 검은 사각형이다¹⁴⁾. 라고 정의한 그의 작품안의 정사각형<그림3>은 잠재의식의 형태가 아님을 설명한다. 그것은 직관적인 이성의 창조물이고, 새로운 미술의 얼굴, 담담하고 싱싱한 갓난아기이다. 이전에는 단지 순진하게 왜곡된 형태들과 자연의 모방물 만이 존재했다면, 이는 미술에서의 순수한 창작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⁵⁾.

이 시기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색채의 함축성과 절제성은 단색조로 명상적이고 금욕적인 태도로 표상하는 종교적 색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검정색이 가지는 색채의 심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인간성의 본질적인 회귀성이라는 절대세계를 의미한다고 본다. 색채심리치료사 페라셀수스(Peracelsus)는 “무엇이든 흰색을 띤 것은 생명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의 속성이다. 한편, 무엇이든 검은색을 띤 것은 대개 죽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죽음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어두움의 속성과 힘인 것이다.”¹⁶⁾라고 작품에서 보여진 검정의 심리적 의미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절대주의의 요소로 일컬어지는 말레비치 이 작품 중 원 모티브가 있는 작품은 ‘PLANE IN ROTATION, CALLED BLACK CIRCLE(1915)’이며, 십자형의 모티브가 있는 작품은 ‘BLACK CROSS’, 흰 사각형과 검은색 사각형이 반복되는 ‘FOUR SQUARES’도 1915년 말레비치의 회화작품이다. 이들 회화에서 보여 지는 정방형, 삼각형, 십자형, 사각형, 원등의 절대주의 요소는 그 형태가 내제하고 있는 절대성과 함축성으

로 절대주의 공간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림4>. 이 형태들은 흑색시대 작품들에서 나타나듯이 놓여진 상태와 공간구조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흰색 바탕 위의 검은색 정사각형은 비 객관적인 감수성 표현의 형태였으며, 정사각형은 감각을, 흰색 바탕은 감각세계의 무의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각형은 아니었다. 또 다른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하학적인 형태가 물질을 지배하는 정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흑색시대에 이어 몇 종류의 색이 나타나는 다색시대가 이어진다. 이 시기의 그림들은 절대주의 구성 등에서 보여지듯이 순수한 색채의 black, blue, green, yellow, red 컬러의 원색사각형들의 사선구성이 white 바탕과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생동감과 리듬감을 보여준다. 말레비치의 작품 ‘Suprematism(SUPREMUS NO.50)’은 흑색시대에서 다색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 중 하나로 블랙 사각형위에 일정한 간격의 수평으로 위치하는 레드컬러의 사각형들이 정지된 화면 속에서 움직임과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주의 회화에 있어 단일한 형태를 약간 기울이면서 생겨났던 움직임에 대한 암시는 형태들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고, 보다 복잡한 구성을 형성함으로써 공간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화면 자체도 단일한 평면에서 깊은 공간감으로 인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색채는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¹⁷⁾. 그에게 있어 채색된 기하형태들은 새로운 차원을 향해 움직이면서 4차원의 세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간주되었음이 파악된다.

절대주의 시기의 말레비치의 회화작품들을 분석해보면, 1915년 2월 최초의 절대주의 회화를 발표한 페트로그라드에서 오픈한 전시 0.10전에 전시된 ‘검은 정사각형(Black Square)(1913년)’ <그림3>은 단순한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대상의 부재(不在)에 대한 느낌의 표출이었다. 그의 의지와 재현의 세계를 버리면서 감수성 이외에는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미지의 지평을 연다. 이 작품은 비 객관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첫 형태로서 정사각형은 감각을, 흰색 바탕은 이

감각 세계의 외부에 있는 무의 상태를 말한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작품들은 순수 논리적인 비 현세적인 법칙에 따른 검은 평방의 원천적인 형식의 분해 결과인데, 그 작품들은 감성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식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비구상적 세계’를 뜻한다¹⁸⁾. 절대주의적 구성에서 흰 사각형 속에 있는 검정색 사각형은 그 효과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었다.

그의 두 번째 구성작품에서는 흰 사각형의 모퉁이에서 방황하는 검정색원을 구성함으로써

<표1>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 작품 분석

작 품 명	작 품	조형적 이미지 분석
Black Square 19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절대주의 회화 · 색채의 함축성과 절제성은 단색조로 명상적이고 금욕적인 태도로 표상하는 종교적 색채를 나타냄
SUPREMATIST PAINTING: BLACK RECTANGLE, BLUE TRIANGLE 19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형 외에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설명된 다른 도형과의 결합 · 절대주의적 구성작품인 사각형의 변화, 발전
SUPREMATISM: PAINTERLY REALISM OF A FOOTBALL PLAYER 19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이지 않는 직사각형에서 탈피 · 기하학적 도형의 동적구성 · 원색적 색채의 등장
SUPREMATISM (SUPREMUS NO.50) 19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사각형을 수직으로부터 기울어지게 배치 · 항공의 세계와 현대 테크놀로지 탐구시작
White on White 19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사각형을 화면상에 기울어지게 구성 · 가장 단순화된 기하학적형태의 회화로 환원

서로 작용하고 공간적 간섭을 일으키게끔 발전시킨 것이다. 이후의 작품들은 사각형을 기본으로 다른 도형을 배치함으로써 수평과 수직선인 면들 사이에 공간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작품에서부터 말레비치는 새롭고 양극을 이루는 절대주의적인 구성작품에 포함되는 사각형의 변화를 발전시킨 것이다.

절대주의 회화의 작품시기도 중기로 넘어가면서 사각형을 중심으로 기하학적 도형을 배치하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던 작품들이 마치 1960년대의 화가들의 변형된 캔버스를 예시해 주고 있는 것 같은 수직-수평-수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화면 구성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러한 화면구성은 그가 1913년 말부터 탐구하기 시작한 항공의 세계와 현대 테크놀러지에 관계된 것들이었다¹⁹⁾. 중기의 작품시기를 거쳐 그는 1918년에 가장 단순화된 일련의 ‘White on White’를 발표한다. 흰색의 색상의 모티브를 다른 정방형 캔버스 속에 예민하리만큼 기울어지게 구성함으로써 가장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의 회화로 환원하게 된다. 이러한 말레비치의 회화 작품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2. 니트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니트의 종류

편물 생산은 직물 생산보다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편물기는 다양한 기법을 응용한 소재의 개발이 가능하다. 최근 소비자들의 편물 선호는 더욱 증대하고 있어 편물의 구조와 그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인 직물은 가로실과 세로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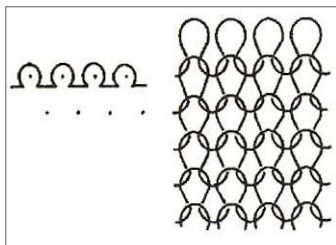
교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나 니트는 이와는 달리 세로 또는 가로의 어느 쪽인가 한방향의 실을 이용하여 루프(loop)를 계속 형성해 나간 것이다.

편물의 종류는 직물의 경우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루프를 가로방향으로 형성하는 위편물(weft knit) <그림5>와 루프를 세로방향으로 형성하는 경편물(warp knit) <그림6>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²⁰⁾ 또한 그 구조를 정하는 요인은 조직, 밀도, 가공 등이다. 편물의 조직은 루프의 구성이나 배열상태를 일컫는데, V자형 코가 상하로 나타난 세로방향의 줄을 웨일(wale), 반원형은 코가 좌우로 나타난 가로방향의 줄을 코스(course)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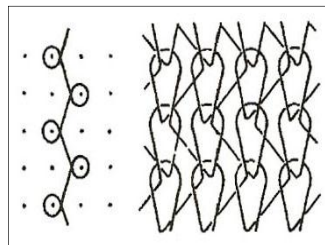
위편물은 기본적으로 횡편(weft knit)과 환편(circular knit)으로 나뉘며, 횡편은 고리 즉, 루프로 만들면서 좌우로 왕복하여 가로방향의 코를 만들어 평편한 원단을 편성하고, 환편은 나선형으로 돌면서 원통형의 원단을 편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터로 표현되기도 하는 위편성 조직 중 횡편 편물기를 이용한 배색 디자인의 니트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며,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편물의 기본조직에는 코의 연결 방식에 따라 평편, 고무편, 필편 조직과 이러한 기본 조직을 응용한 여러 가지 변화조직이 있다. 또한 배색을 응용하는 편직 방법으로는 컬러 자카드 방법과 인타시아 기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 되돌아뜨기 기법을 응용하는 디자인도 있다.

2) 기본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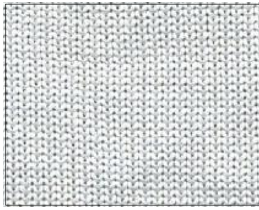
편물의 기본형은 걸뜨기와 안뜨기로 이루어



<그림5> 위편물의 조직



<그림6> 경편물의 조직



<그림7> 평편
(plain stitch, knit stitch)



<그림8> 고무편
(knitted rib)



<그림9> 펄편
(purl stitch)

진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위편성물의 기본 조직에는 평편, 고무편, 펄편이 있다.

평편은 플레인 스티치(plain stitch) 또는 니트 스티치(knit stitch)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저지(jersey) 또는 메리야스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직으로 바늘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루프를 이끌어내며, 같은 평편이라도 실, 밀도의 변화, 편성 후 후처리방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다른 편성조직에 비해서 가볍고 편성속도가 빨라서 스웨터, 셔츠, 스타킹 등에 널리 사용된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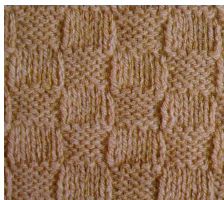
고무편은 리브편(knitted rib)이라고 하며, 웨일 방향에 겹뜨기와 안뜨기가 교대로 배열되는 리브조직으로 겹과 안 모두 같은 외관으로 코스방향의 골이 나타난다. 편물구조상 코스방향으로의 신축성이 크다. 겹뜨기와 안뜨기의 배열은 1:1 또는 2:2, 3:3, 2:3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고무편은 횡편기나 환편기에서 생산되는데, 코스 방향의 신축성이 대단히 크고, 두꺼운 편물로서, 스웨터의 허리부분이나 소매끝, 목둘레 등에 이용되는 편성조직이다<그림8>.

이외에도 가터스티치라고 불리는 펄편이 있는데, 웨일 방향으로 겹뜨기와 안뜨기가 교대로 배열되는 조직으로 겹과 안 모두 평편의 뒷면과 같은 외관, 구조상 신축성이 좋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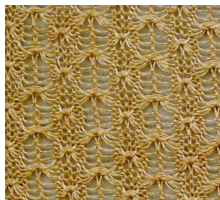
3) 변화 조직

위편성물의 변화조직으로는 양면편, 터크, 부편, 레이스, 자카드, 편성파일, 테리편 등이 있다. 양면편은 양두, 링스(Links Links)라고 하며, 겹뜨기와 안뜨기의 양면 조직을 복합하여 편직 한 것이다<그림10>. 터크편(tuck stitch)은 기본 조직 중에서 2개의 편목길이 이상으로 길게 루프를 형성하는 편목을 말한다. 한 코를 다음 코스의 코와 합쳐서 그 다음 코에 거는 조직으로 두껍고 질긴 편성물이 얻어진다<그림11>. 부편은 웰트 스티치(welt stitch) 또는 미스 스티치(miss stitch)라고 하며 코스 도중에 코를 만들지 않고 띄우는 편성으로써, 뒷면에는 실이 옆으로 길게 직선으로 떠 보이나 표면에는 긴코가 나타나므로 변화가 생겨 무늬를 내는데 이용한다<그림12>. 레이스편(lace stitch)은 코를 건 웨일의 코에 합쳐서 걸어 편성하는 조직으로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된다. 레이스편은 최근 로맨틱 트렌드의 흐름과 함께 매우 중요한 니트 조직으로 등장하고 있다<그림13>. 다음 케이블 조직도 레트로 트렌드 경향으로 최근 컬렉션에 많이 응용되며 사용되고 있다<그림14>.

기본 편직조직외의 이러한 변화조직들은 컴퓨터 니트 자카드 기계에 의해 편직하며,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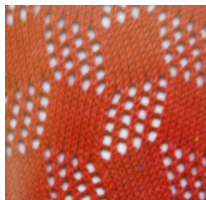
<그림10> 양면편
링스(Links Li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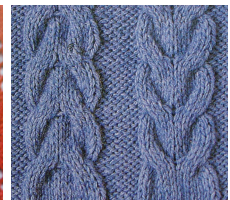
<그림11> 터크편
(tuck stitch)



<그림12> 부편
(welt stitch, miss stitch)



<그림13> 레이스편
(lace stitch)



<그림14> 케이블편
(cable stitch)

을 응용하는 디자인의 니트는 컴퓨터 컬러 니트 자카드 기법이나 인타시아 편직 기법을 이용하여 편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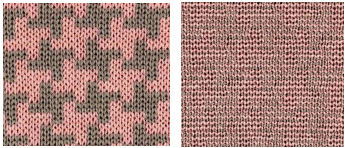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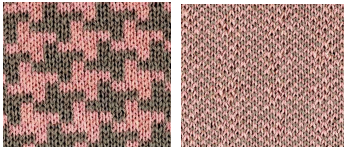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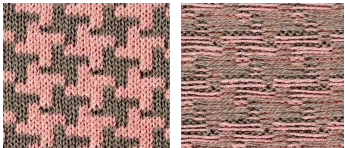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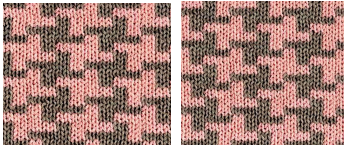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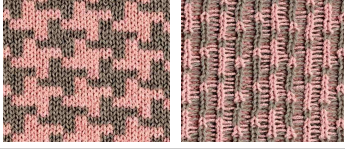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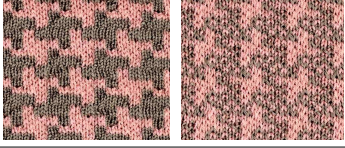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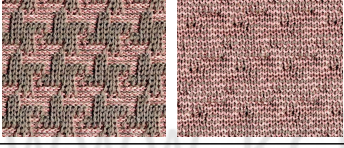
4) 자카드

자카드(Jacquard)라는 용어는 1804년 조셉 마리 자카드(Joseph Marie Jacquard)가 발명한 직물

의 경사 선침 장치에서 유래되었으며, 니트에 있어서는 바늘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색사에 의한 무늬를 내는 장치를 뜻하고, 자카드 장치에 의한 무늬를 자카드 무늬라고 한다(21).

자카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따라 선택된 바늘은 앞 베드에서 니트하고 그렇지 않은 바늘은 뒤 베드에서 니팅한다. 같은 구간에서 색상 수가 증가하면 소요되는 실의 양이 증가되고 편

<표2> 2도 컬러 컴퓨터 니트 자카드의 종류와 특징

명 칭	형 태 (표면과 이면)	특 징
노말 자카드 (Nomal Jacquard)		all needle backing에 의하여 편성 중량이 많아 원사 소모량 많음 3도 이상이 되면 표면 무늬가 늘어나 뒷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음
버드아이 자카드 (Bird'eye Jacquard)		노말 자카드의 단점을 보완 원사 소모량 및 표면의 무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완 일반적으로 4도 이상의 색상으로 작업할 시 가장 선호되는 방법
플로팅 자카드 (Floating Jacquard)		원사 소모량이 절약되고 완성된 편지의 무게도 가벼우나, 완성된 편지의 뒷면이 이면의 실이 플로팅되어 있어 착용 시에 불편을 초래
튜블러 자카드 (Tubular Jacquard)		자카드 편지 중 가장 두꺼운 조직을 연출, 2도인 경우 표면과 이면의 무늬와 색상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리버시블 형태의 디자인에 응용가능
레더백 자카드 (Ladder's back Jacquard)		튜블러 자카드와 플로팅 자카드의 중간자카드, 4도까지 가능하지만 색상 도수가 많아지면 튜블러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2도까지만 일반적으로 사용
블리스터 자카드 (Blister Jacquard)		싱글 블리스터의 부풀음은 적고, 더블 블리스터는 용기 큼, 버드아이 자카드와 튜블러 자카드의 중간 조직
트랜스퍼 자카드 (Transfer Jacquard)		이면의 실이 앞에서 보이게 하여 연출하는 조직, 바닥조직을 형성하는 편사 중 뒤 베드의 바늘들에 편성되는 편사의 색상선택에 따라 패턴상태가 변화함

지는 그 만큼 두꺼워 진다. 자카드는 이면조직에 따라 그 종류가 노말 자카드(Nomal Jacquard), 버드아이 자카드(Bird'eye Jacquard), 플로팅 자카드(Floating Jacquard, Single Jacquard), 튜블러 자카드(Tubular Jacquard), 튜블러 자카드(Tubular Jacquard), 레더백 자카드(Ladder's back Jacquard, Binding Jacquard),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acquard),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의 7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편직의 종류와 편직 특성에 따라 크기, 중량, 물성들의 차이가 있다. 2도 컬러 컴퓨터 니트 자카드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5) 인타시아

인타시아(Intarsia)는 이탈리아어인 'Intarsiare'에서 유래된 말로서 인레이(Inlay: 상감하다, 도장찍다)를 뜻한다. 인타시아는 실제적으로 도장찍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배색무늬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으로²²⁾ 디자인이 뚜렷하고 평편의 조직으로 편물의 두께가 얇아서 최근 섬유계의 경량화 트렌드에 발맞추어 가장 선호되는 니트 조직이다<그림15>.

평 브이(V) 베드 편기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디자인을 형성하는 실만 편성되어 편성된 디자인 이면이 표면과 같은 색으로 나타난다. 디자인된 패턴이 뚜렷하고 편물의 두께는 얇게 표현되어 최근 가장 많이 선호되는 니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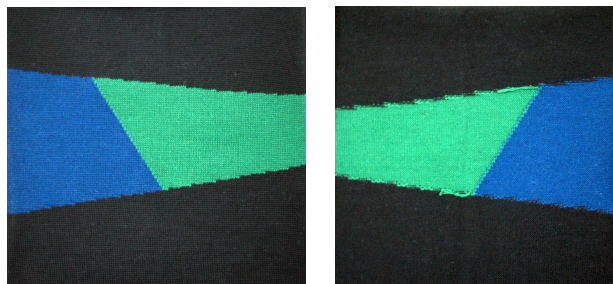
인타시아 기법을 사용한 디자인은 디자인이 뚜렷하고, 편물의 두께는 얇은 것이 특징인데,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아가일 패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최근 컴퓨터 편기의 발달과

함께 캐릭터나 원 패턴 문양을 표현하는데 많이 편직 되고 있다.

III. 작품제작

본 연구에서는 절대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추상미술작가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에서 기하학적 모티프와 원색적인 색채를 연구하여 모티프를 재구성하고, 이를 응용하여 장식성과 실용성, 독창성이 요구되는 니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아가 회화와 의상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현대 패션 예술의 디자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말레비치의 회화 이미지를 니트웨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 니트 기법을 사용하였고, 니트웨어의 디자인과 모티프의 특성에 따라 양면으로 편직 할 수 있는 자카드 기법과 반복되지 않는 비대칭형의 모티프를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인타시아 기법으로 나누어 작업하였다. 본 작품 연구에서 사용한 컬러 니트 자카드 조직은 튜블러 자카드로 앞서 설명했듯이 2도 컬러 자카드인 경우 표면과 이면의 무늬와 바닥 조직의 색상이 반대로 되는 리버시블 형태의 효과를 응용하여 앞, 뒷면을 뒤집어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인타시아 효과를 살릴 수 있는 플레인 편을 조각으로 작업하여 연결시켜 보기도 하였다. 모티프는 작품에서 보여진 모티프를 작품의 특성에 맞추어 재구성하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램스울(lamb's wool)과 AW(아크릴울, acryl/wool)의 혼방 원사를 섞어서 편직하였다. 니트 위에 스팅글 비즈의 패치워크와



<그림15> 인타시아 조직의 표면과 이면 (3도)

<표3> 작품 계획표

NO	작품	응용모티프	구성	소재	편직기법	색채	실루엣
I			Long-cardigan	램스울, 2/48's Wool	Tubular Jacquard (12GG)		
II			Vest Pants	램스울, 2/48's Wool	Intarsia (5GG)		
III			One-piece Pants	램스울, 2/48's Wool	Tubular Jacquard (12GG)		
IV			cardigan Pants	램스울, 2/48's Wool	Intarsia (5GG)		
V			One-piece Belts	2/48's Wool	Intarsia (10GG)		
VI		 	Pullover One-piece	램스울, 2/48's Wool	(Pullover) Intarsia (5GG) (One-piece) Tubular Jacquard		
VII			One-piece	2/48's Wool, 스팽글 비즈	Tubular Jacquard (12GG)		
VIII			One-piece Pants	램스울, 2/48's Wool 스팽글 비즈	Intarsia (10GG)		

<표4-1> 작품 구성표 1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디자인				
모티프 작품				
편직기법	Tubular Jacquard(12GG)	Intarsia(5GG)	Tubular Jacquard(12GG)	Intarsia(5GG)
작품 설명	<p>롱 가디건으로 앞중심을 따라 파이핑 처리를 하여 리버시블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의 깔끔한 마무리를 하였고, 말레비치 작품속의 옐로우 컬러의 원 모티프를 망사레이스에 비즈를 부착하여 탈부착 가능한 코사쥬로 제작하여 마무리 하였다.</p>	<p>작품의 앞면에는 블랙컬러와 레드컬러의 큰 면으로 구성하고, 옐로우 컬러의 2:2 Rib 조직의 터틀넥으로 작품에서 중심으로 보여진 모티프를 면분할 구성하였고, 작품의 뒷면은 말레비치 작품속에서 보여진 중심모티프를 재구성하여 모티프를 구성하였다.</p>	<p>작품의 겉면에서는 아이보리 컬러위에 블랙컬러의 사각형을, 안쪽 면에서는 블랙컬러위에 아이보리 컬러의 사각형 모티프를 보여주는 리버시블 디자인 하였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카울 느낌의 터틀넥 니트 원피스로 말레비치 작품에서 보여진 블루 컬러의 삼각형을 포켓으로 편직하여 링킹으로 부착하였다.</p>	<p>작품의 앞면에는 옐로우컬러와 블랙컬러의 큰 면으로 구성하였고, 작품의 뒷면에는 작품속 주요 모티프를 중심으로 간략화한 니트 가디건으로 목둘레에서 앞중심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아이보리 컬러의 핸드 니트로 5:5 케이블 앞단을 편직하여 부착하였다.</p>

<표4-2> 작품 구성표 2

	작품 V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디자인				
모티프 작품				
편직기법	Intarsia(10GG)	Intarsia(5GG) Tubular Jacquard(12GG)	Tubular Jacquard(12GG)	Intarsia(10GG)
작품 설명	앞 뒤 몸판 3쪽을 편직하여 링킹으로 연결하여 인타시아 기법의 효과를 살린 깔끔한 원피스 디자인이다. 말레비치 작품속의 수직선을 따라 길게 내려오는 레드컬러의 모티프를 작품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였고, 말레비치 작품속의 수평선을 따라 위치한 모티프는 블랙컬러의 에나멜 벨트로 표현하였다.	폴오버와 민소매 원피스의 세트 디자인으로 구성, 폴오버는 옐로우컬러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아이보리 컬러를 단순화된 사각형 모티프로 넣어주어 5GG 인타시아 기법으로 제작하였고, 밑단부분에는 수술을 달았다. 원피스는 민소매 디자인으로 작품속의 블랙컬러의 사각형들을 중심모티프로 표현하였다.	작품의 겉면에서는 아이보리 컬러위에 레드컬러의 사각형을 모티프로 보여주었고, 안쪽면에서는 레드컬러 위에 아이보리 컬러의 사각형 모티프를 보여주는 리버시블 디자인을 하였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블랙컬러의 모티프는 스팅글 비즈를 패치워크하여 표현하였다.	말레비치 작품속의 컬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두께의 스트라이프로 재구성하고, 사선 느낌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는 언밸런스한 디자인으로 스트라이프 사이에 옐로우 컬러의 비즈를 넣어 편직하였다.

에나멜 액세서리의 코디네이션, 작품 모티프에 맞춘 코사슈 등으로 말레비치 작품의 특성이 니트웨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제작에 사용한 색채는 말레비치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흰색, 검정, 파랑, 초록, 빨강, 노랑의 컬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절대주의 시기 말레비치 작품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 원색적인 색채의 특징을 니트웨어의 장점을 살린 총 8점의 여성용 니트웨어 의상디자인에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제작에 있어 작품 계획표는 <표3>, 작품 구성표는 <표4-1> <표4-2> 로 정리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추상미술작가인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시기의 작품을 고찰하여 실용성, 장식성, 독창성을 겸비한 니트웨어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니트웨어는 독창적인 질감과 우수한 신축성, 편안하고 따뜻한 기능성을 겸비해 현대 패션에서 각광받고 있다.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시기 작품들의 모티프를 응용하여 소재의 복합성, 다양한 컬러와 패턴을 제안할 수 있는 컴퓨터 기계니트로 제작하였고, 조형적 특징인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의 구성을 연구하여 모티브로 재구성하고, 색채는 말레비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흰색(white), 검정(black), 파랑(blue), 초록(green), 빨강(red), 노랑(yellow)의 컬러를 사용하여 말레비치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컴퓨터 니트웨어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화는 현대 의상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모티브이며, 개인적 사고와 표현방법에 따라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의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시기 회화의 기하학적 조형요소와 원색적인 컬러는 의상디자인의 모던한 이미지로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카지미르 말레비치 회화의 구성요소를 의상에 도입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법과 모티브 응용을 제안하고, 예술과 패션의 만남을 통

해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작품을 응용한 컴퓨터 니트디자인 작품의 편직 기법 중 하나인 니트 자카드 기법은 자카드 기법 중 튜블러 자카드 기법으로 자카드 편직 중에서 가장 두께감이 있어서 형태안정성을 요하는 디자인에 적합한 기법이다. 편직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2도 컬러인 경우 표면과 이면의 무늬와 바닥조직의 색상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카드 기법의 특성을 이용한 리버시블 형태의 디자인 표현에 적합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작품제작에 활용한 컴퓨터 니트 기법 중 인타시아 편직기법은 배색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며, 편물의 두께가 얇아 최근 섬유 시장의 경량화 트렌드에 맞춰 선호되는 편직이다. 이번 연구 작품에는 디자인에 따라 양면 더블조직의 종류인 컬러 니트 자카드 기법의 튜블러 자카드 편직기법과 인타시아 편직기법을 응용하였다. 두 편직 기법 모두 대량생산이 가능한 편직 기법으로 앞으로의 니트 패션산업을 성장발전하기 시키기 위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기에도 적합하다.

본 연구에는 기존의 니트웨어에서 보여지던 반복적이고, 획일화된 일반적인 모티프에서 벗어나 예술과 패션의 만남과 같은 창의적인 니트웨어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한 니트웨어는 편직물위에 비딩, 패치워크의 표현 기법이 함께 응용되어 소재를 구성함으로써 말레비치 작품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으로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예술과 패션과의 만남도 새로운 가치를 지니 표현영역이 확대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기법과 소재도 연구되어 조형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니트웨어의 고부가가치로 창출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5). 의류소비 실태조사 보고서.
- 2) 아트마케팅. 월간미술 2007년 1월호 p.140.
- 3) Camilla Gray (2001). *THE RUSSIAN EXPERIMENT*

- IN ART 1863-1922*. Thames & Hudson world of art, pp.68-218.
- 4) 정지윤 (2001). 신비주의를 통해 본 말레비치의 작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 5) 김현화 (2002). *20세기 미술사*. 서울: 한길아트, p.114.
 - 6) Jean-Luc Daval(1990). 홍승혜(역). *추상미술의 역사*. 서울: 미진사, p.49.
 - 7) Alfred H.Bar (1993). *Cubism and Abstract Art*.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pp.122-123.
 - 8) 이금희 (2007). 절대주의 실험예술의 환경과 예술가 의상. *복식문화학회지 15(1)*, p.166.
 - 9) Charlottle Douglas (1974). "Birth of Royal Infant." *Malevich and Victory over the sun, Art in America 62(2)*, p.70.
 - 10) Russia Avant Garde 1910-1930, p.105.
 - 11) Larissa.A.Zhadora (1982). *Malevich: Suprematism and Revolution in Russian Art 1910-1930*. London: Thames & Hudson. P.46.
 - 12) 신정심 (1980). K.Malevich의 Suprematism(절대주의)회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 13) Larissa. A. Zhadora (1982). Op. cit., p.46
 - 14) Aaron Scharf (1974). *Suprematism: Concept of Modern Art*. New York: Icon Edition, p.137.
 - 15) Jean-Louis Ferrier. 김정화 역 (1990). *20세기 미술의 모험*. 안양: 에이피 인터내셔널, p.207.
 - 16) Faber Birren. 김화중역 (1991).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p.47
 - 17) 정지윤 (2001). Op. cit., p.57.
 - 18) 보리스 그로이스. 최문규 역 (1995). *야방가르드와 현대성-러시아의 분열된 문화*. 서울: 문예마당, p.41.
 - 19) Guggenheim MUSEUM (2004). Kazimir Malevich.
 - 20) 김성련 (2000). *피부재료학*. 서울: 교문사, p.334.
 - 21) 김석근 (1996). *메리야스 공학*. 서울: 문운당, p.68.
 - 22) 김영주 (2004). *수동 인터샤 편기*. 한양여자대학, P.252.